

국립목포대, 육상부·탁구부 공식 창단

육상 선수 16명·탁구 선수 5명 구성

초·중·고·대·실업 연계육성 선순환 운영지원금 3년간 2억5천만원 확보
송하철 총장 “전남 체육 중심될 것”

국립목포대학교가 육상부와 탁구부를 공식 창단하며 전남 체육의 중추 역할을 본격화한다.

11일 전라남도체육회에 따르면 국립목포대는 11일 오후 2시 목포대 70주년 기념관에서 육상부와 탁구부 창단식을 열고, 지역 엘리트 체육 인재 육성에 나섰다.

이번 창단은 2023년 체결된 전남체육회와 목포대 간 업무협약에 따른 후속 조치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승인을 거쳐 탁구부는 2024년, 육상부는 올해 특기생을 선발해 전국 단위 대회에 출전하고 있다.

그동안 전남 체육은 학생선수 감소와 수도권 집중에 따른 대학부 엘리트 팀 구성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중·고교와 실업팀간 연계 육성체계에서 ‘대학부’의 부족이 전남체육의 약점으로 꾸준히 지적돼 왔다.

이에 전남체육회는 전략 종목 중심의



국립목포대 육상부와 탁구부 창단식이 11일 목포대 70주년 기념관에서 열려 송하철 목포대 총장과 송진호 전남체육회장, 육상부 및 탁구부 감독·선수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전남도체육회 제공

대학 운동부 창단을 목포대에 요청했고, 육상과 탁구 두 종목에서 국립대 최초 운동부 창단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창단으로 전남은 초·중·고·대학·실업팀으로 이어지는 선수 육성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2025 운동부 창단운영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3년간 2억5500만원의 국고도 확보했다.

육상부는 박희석 체육학과 교수가 감독, 국가대표 출신 이승호 씨가 코치를 맡았으며, 13명의 남자선수와 3명의 여자선수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선수 중에는 제104회 전국체전 1600m계주 우승자 김기현, 제105회 전국체전 세단뛰기 은메달리스트 김나영 등도 포함됐다.

탁구부는 이승재 체육학과 교수가 감

독, 김성민 코치가 지도자를 맡고 있으며, 3명의 남자선수와 2명의 여자선수 등 총 5명으로 구성됐다. 주요 선수로는 제43회 대학탁구연맹전 단체전 8강 주역인 안지현, 박준서, 정의진 등이 있다.

송하철 목포대 총장은 “이번 육상부와 탁구부 창단은 단순한 운동부 신설이 아니라, 지역 체육 인재들에게 꿈과 미래를 제공하는 대학의 책무”라며 “전폭적인 지원으로 전남 체육의 중심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진호 전남체육회장은 “오랜 시간 준비한 대학부 창단이 마침내 현실이 됐다”며 “앞으로도 중·고교와 실업팀 간 유기적 연계가 이어지도록 체계적인 육성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동환 기자 cdstone@jnilbo.com

광주시, 이동노동자 폭염대응 안전 캠페인

광주광역시는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배달·택배 노동자 등 이동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온열질환 예방 안전 캠페인’을 11일 북구 용봉동, 12일 광산구 장신로 일원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폭염 취약계층인 이동노동자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고, 더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시는 캠페인 기간에 배달라이더 200여 명을 대상으로 냉커피 음료차를 운영하고, 쿨도시·쿨버프 등이 포함된 온열질환 예방키트를 배포했다.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홍보물도 함께 제공했다.

광주시는 그동안 생수 나눔 캠페인, 이동노동자 공공쉼터 운영 등 무더위 속에서 일하는 현장 노동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도 무인



광주광역시는 여름철 폭염 이동노동자 건강·안전 보호위한 ‘온열질환 예방 안전 캠페인’을 11~12일 북구·광산구 일대에서 진행한다.

광주광역시 제공

쉼터 운영 등 보다 촘촘한 안전망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이계두 노동일자리정책관은 “심화하는 폭염 속에서 이동노동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캠페인을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일선 노동자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예방 활동과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상아 기자

광주 사랑의열매, 구제길 세종의료재단 이사장 신임 회장 선임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광주 사랑의열매)는 14대 회장으로 구제길(사진)(의)세종의료재단 이사장을 선임했다고 11일 밝혔다.

구제길 신임 회장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광주에서 의료법인 세종의료재단 세종병원·세종요양병원 이사장과 2003년부터 금호·송정·화순장례식장 대표이사를 맡아 지역 보건의료 발전에 힘써왔다. 국제라이온스협회 국제이사 및 한국연합



회 이사장을 맡아 한국 라이온스를 책임지는 역할도 해왔다. 또한 광주 사랑의열매 고액 기부자 모임인 아너소사이어티 82호(16호 부부 아너) 회원으로 가입, 광주 사랑의열매 아너소사이어티 대표를 역임하며 신규 아너 40명 이상의 가입을 이끌었다.

구 신임 회장은 사단법인 광주광역시

동구체육회 민선 초대회장, 바르게살기운동 광주광역시협의회회장, 광주광역시 동구 자원봉사센터 이사장 등을 역임하며 대표적인 지역 사회공헌 인물로서 폭넓은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구제길 신임 회장은 “사랑의열매가 누구나 믿고 찾을 수 있는 나눔의 뒤주, 현대판 ‘타인능해(他人能解)’가 되도록 낮은 곳에서 헌신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정승우 기자

전화 (062)510-0412
e-메일 edit@jnilbo.com

본란은 애독자를 위한 무료서비스란입니다.
(보낼곳)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전남일보 5층

전일 게시판

▽빛고을아동보호전문기관=학대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

한 상담·치료 및 교육, 가정의 사후관리, 일상생활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아동학대 신고전화:112), 문의:(062)675-1391

결혼

▽문병익(전남일보 이사)·최해정씨 아들 찬주군, 김동선씨 딸 태희양=6월14일(토) 오후 1시,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로 162번길 110(남악리 2627) 남악스카이웨딩컨벤션 3층 그랜드엘렌홀(061)284-0010

전진숙 의원 ‘제5회 국회 의정대상’ 수상

더불어민주당 전진숙(복구을·사진) 의원이 11일 국회가 직접 평가·선정하는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에서 입법활동 부문(사회문화 분야) 우수상을 수상했다.

전진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높이 평가됐다. 이 법안은 의료기관이 사용하는 외부 처방 소프트웨어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연계해, 의사가 환자의 마약류 투약 이력을 처방 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마약류 오남용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해졌으나 의사가 처방 단계에서 환자의 투약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마약류는 펜타닐 단 1종에 한정됐다. 이로 인해 여러 의료기관을 돌며 마약류를 중북·과다 처방받는 ‘의료쇼핑’ 등 부작용이 발생해왔다.

전 의원은 국립정신건강센터 등 현장 방문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 및 단체와의 면담을 거쳐 2024년 11월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쟁점을 해소하며 2025년 2월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최종 가결됐다.

의정대상 심의위원회는 “사회문제에 대한 현실적이고 시의성 있는 법안이며 현장 중심의 입법 노력이 돋보인다”고 평가했다.

전진숙 의원은 “제22대 국회의원 중 24명만 선정한 입법활동 부문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하여 매우 기쁘다”며 “입법활동의 원동력은 현장에 있다. 앞으로도 현장과 소통하며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법안을 만들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성과를 공정하게 평가·시상하는 제도다. 올해 의정대상에는 입법활동 우수 의원 24명, 정책연구 우수 의원연구단체 6개, 우수 상임위원회 3개가 선정됐다.

서울=김선욱 기자



광주남구진월동지사협, 복지사각지대 발굴 캠페인

복지지원 발굴 참여 유도

광주광역시 남구 진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11일 푸른길공원 광장에서 복지 통합상담을 위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사진)

이번 캠페인은 진월동 주민자치회, 남구치매안심센터, 남구가족센터와 함께 주민들을 대상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고독사 및 치매 예방에 힘쓰고 가족친화 문화 확산을 증진하는 데 목적을 뒀다.

4개 기관이 협력하여 진행한 이번 캠페인에서는 기관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해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인식

개선, 복지지원 발굴 참여를 유도했다.

장교선 진월동장은 “어려움을 겪는 우리 이웃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더운 날씨에도 적극적으로 캠페인을 진행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며 “지역 주민 네트워크를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가 조성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승수 지사협위원장은 “복지 사각지대는 현장에서 먼저 발견해야 제때 지원할 수 있다”며 “이웃이 이웃을 살피는 지역 중심 복지체계를 실현할 수 있도록 홍보 및 발굴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정준 기자

‘지역신문발전기금’ 호남 유일 20년 연속 선정

인터넷 전남일보 www.jnilbo.com
모바일 전남일보 m.jnilbo.com

날씨와 생활		해돋이	해질	달돋이	달질
		05:18	19:47	21:01	05:28
오늘의 날씨 (최저/최고 기온)		자료 : 기상청·웨더아이			
광주·나주 담양·화순	☁ 19/29	무안·함평 장성·영광	☁ 18/28	목포·해남 신안·진도	☁ 19/26
순천·광양 곡성·구례	☁ 18/25	장흥·영암 강진·완도	☁ 18/26	여수·보성 고흥	☁ 19/24
전국 날씨		주간 날씨			
서울	☀ 17/31	대구	☁ 18/30	13일(금)	14일(토)
대전	☀ 17/30	제주	☁ 19/23	15일(일)	16일(월)
물때		생활 기상 정보			
밀물	썰물	밀물	썰물	미세먼지	외출지수
02:35	08:34	10:22	05:12	우산지수	
14:22	20:05	23:14	16:42	보통	짧게 외출하세요
흑산도		필요할지도 몰라요			